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3. 2. 17.(금) 06:00 ~ 2023. 2. 19.(일) 23:00
- 상담건수¹⁾: 1,294건

II. 주요의견 내용

○ 방송 호평(3명)

-프로그램명 : 「한국인의 밥상」 ‘천수만, 어제 그리고 내일’

-방송일시 : 2023. 2. 16.(목) 1TV (19:40-20:30)

이날은 천수만의 겨울 밥상을 만나보았다. 서해 곳간이라고 불릴 만큼 황금 어장을 품었던 곳이어서인지 계국지, 쫄복탕, 해물찜 등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소개돼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밥상을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아 시청자들과 함께해주기 바란다.

○ 출연자 섭외 제언(9명)

-프로그램명 : 「불후의 명곡」 ‘작사가 故 박건호 편’

-방송일시 : 2023. 2. 18.(토) 2TV (18:10-20:05)

이날은 ‘작사가 故 박건호’ 특집으로 꾸며져 총 10팀이 박건호 작사가의 음악으로 무대를 꾸몄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 가수 홍진영 씨가 출연해 보기 불편했다. 논문 표절도 잘못이지만,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홍진영 씨의 대응 태도였다. 홍진영 씨의 방송 복귀가 달갑지 않은 시청자들이 많으니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역사저널 그날’ 외 5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294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²⁾	계
826	30	-	-	438	1,294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646	389	31	-	-	228	1,294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322	972	-	1,294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017	1	78	198	1,294

시청자 의견	문 의
【보 도】 ○ 「사사건건」 - 출연자 제언 【시사·교양】 ○ 「한국인의 밥상」 - 방송 호평 ○ 「동행」 - 방송 호평 【연예·오락】 ○ 「신상 출시 편스토랑」 - 출연자 호평 ○ 「불후의 명곡」 - 출연자 섭외 제언 【라디오】 ○ 「최영일의 시사본부」 - 방송 호평 ○ 「KBS 열린토론」 - 진행자 제언 ○ 「시대음감」 - 선곡 제언	【방 송】 ○ 「6시 내고향」 - 「피순댓국」 연락처 문의 69건 ○ 「2TV 생생정보」 - 「돌문어덮밥」 연락처 문의 52건 ○ 「열린음악회」 - 「방청」 문의 39건 ○ 「KBS 뉴스 9」 - 「보도 제언」 34건 ○ 「사사건건」 - 「출연자 불만」 26건 【기 술】 ○ 「주파수」 문의 1건 【경 영】 ○ 「홈페이지」 문의 35건 ○ 「전화교환」 문의 19건 ○ 「프로그램 구입」 문의 18건 ○ 「사업 및 행사」 문의 4건 ○ 「주차」 문의 1건 외 1건 【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98건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보 도]	
출연자 제언	○ 「사사건건」 ‘여의도 사사건건’(11명) - 2023. 2. 17.(금) 1TV (16:00-17:00)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날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과 윤재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출연해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김행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민주당이 거머리에게 물린 상황’ 등 노골적인 표현을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또한 자주 언성을 높이는 점이 상대와 시청자에 대한 예의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시사 · 교양]	
방송 호평	○ 「한국인의 밥상」 ‘천수만, 어제 그리고 내일’(3명) - 2023. 2. 16.(목) 1TV (19:40-20:30) - 이날은 천수만의 겨울 밥상을 만나보았다. 서해 곳간이라고 불릴 만큼 황금 어장을 품었던 곳이어서인지 계국지, 쫄복탕, 해물찜 등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소개돼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억이 깃든 밥상을 살펴볼 수 있어 의미 있었다. 오랫동안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아 시청자들과 함께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방송 호평	○ 「동행」 ‘내일은 태양’(3명) - 2023. 2. 18.(토) 1TV (18:00-18:55) - 엄마가 집을 나가 아빠와 셋이 살았던 이태양·이환희 형제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아빠마저 지난여름 심장마비로 형제의 곁을 떠났다. 현재 이태양 군은 집안의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러운 가정환경 변화에 힘들 텐데도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대견해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 시청자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어 감사하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의견	세부내용
[연 예 · 오 략]	
출연자 호평	○ 「신상 출시 편스토랑」 - 2023. 2. 17.(금) 2TV (20:30-22:00) - 지난 방송에 이어 박수홍 씨가 20여 년 간 인연을 맺고 후원해온 보육원을 찾는 모습이 그려졌다. 박수홍 씨가 꼭두새벽부터 준비한 50인분의 음식을 가지고 보육원을 찾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 보육원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다. 방송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박수홍 씨 부부를 칭찬하고 싶다. ※의견제시자 : 익명
출연자 섭외 제언	○ 「불후의 명곡」 ‘작사가 故 박건호 편’(9명) - 2023. 2. 18.(토) 2TV (18:10-20:05) - 이날은 ‘작사가 故 박건호’ 특집으로 꾸며져 총 10팀이 박건호 작사가의 음악으로 무대를 꾸몄다. 그런데 지난 2020년 석사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지며 활동을 중단한 바 있는 가수 홍진영 씨가 출연해 보기 불편했다. 논문 표절도 잘못이지만, 더욱 문제가 된 것은 홍진영 씨의 대응 태도였다. 홍진영 씨의 방송 복귀가 달갑지 않은 시청자들이 많으니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라 디 오]	
방송 호평	○ 「최영일의 시사본부」 - 2023. 2. 17.(금) 1R (12:20-13:58) - 딱딱한 시사과 경직된 인터뷰에서 벗어나, 각종 이슈들을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다뤄 점심시간마다 청취한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출연해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는 덕분에 사회 현안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계속해서 청취자들이 꼭 알아야할 주요 시사이슈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의견	세부내용
진행자 제언	○ 「KBS 열린토론」 (2명) - 2023. 2. 17.(금) 1R (19:20-20:30) - 정준희 저널리즘 전문가가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출연해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프로그램이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그런데 정준희 씨가 정치색을 드러내며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아 듣기 불편할 때가 있다. 청취자들이 해당 방송을 신뢰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 외
선곡 제언	○ 「시대음감」 - 2023. 2. 18.(토) 1R (14:05-14:55) (재) - 음악 평론가 김태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음악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는 설정이 좋고,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하다. 다만 젊은층이 좋아하는 곡 위주로 선곡이 이뤄지는 점은 불만스럽다. 공영방송이고 남녀노소가 모두 청취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선곡의 스펙트럼을 더욱 다양하게 넓혀주기 바란다. ※의견제시자 : 익명